

일제시대 기생조합의 춤에 대한 연구 - 1910년대를 중심으로

김 영 희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원

I. 서론

II. 기생조합의 성립

III. 기생조합의 현황과 교육

IV. 기생조합의 연주활동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한국무용사에서 일제시대의 무용사는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춤의 前 시대로서 현재 활동 중인 무용인들의 춤선생님, 혹은 그 춤선생님의 춤선생님이 활동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무용사에서 일제시대는 오랜 세월동안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추어지던 우리의 궁중무와 민속무 전반 전통춤이 서구문화와 만나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맞이했던 시기이고, 외국춤이 처음으로 수입된 시기였고, 외국춤을 수용하여 신무용이라는 양식이 만들어졌던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 시기에 활동한 무용인으로 조선무용연구소를 통해 활동한 한성준과 신무용 활동을 한 최승희, 조택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저변에서 끊임없이 춤 활동을 했던 이들이 있으니, 바로 기생들이다. 이들은 기생조합과 권번을 중심으로 춤 활동을 했고, 전통시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시기에 춤 활동을 했다. 전통시대에 추던 귀중한 전통춤 자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으며, 현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전통춤을 바탕으로 새로운 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기생들의 춤은 일제시대 대표적 무용인인 한성준, 최승희, 조택원의 춤의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한성준은 전국의 기생조합과 권번에서 기생에게 춤을 가르치면서 새로 배우기도 하여, 가르치고 배운 춤을 정리하여 작품화하였다. 한성준의 작품의 토대와 배경 중에는 일제시대에 활동한 기생들이 있었다. 한성준의 작품을 추었던 이들도 기생들이었다. 또한 최승희는 현대무용으로 춤을 시작했으나 전통춤 배워 신무용이라는 새로운 한국춤 양식을 만들어냈다. 최승희의 여러 신무용 작품은 전통춤의 소재와 기법을 이용하였다. 조택원도 결국 전통춤을 배워 자신의 춤을 만들었다. 그의 대표작 「가사호접」은 승무를 기본으로 하였고, 「부여회상곡」은 한국춤의 소재를 담아낸 작품이었다.

그 외에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원로 무용인들은 기생이나 기생에게 배운 사람에게서 춤을 배워 현재에 이어주고 있다. 이매방(李梅芳)선생은 목포권번의 이대조선생과 이창조선생에게 배웠다. 한진옥(韓鎭玉)선생은 남원권번의 옥과(玉果) 출신인 이장선선생과 순천(順川) 태생인 이창조선생에게 배웠다. 두한수(杜韓秀 본명 安秀)선생은 군산권번의 김백용선생에게 배웠다. 김덕명(金德明)선생은 양산권번 고수길 원장에게 배웠다. 김수악(金壽岳)선생은 진주권번 김옥민, 최완자선생에게 배웠다. 안채봉(安彩鳳)선생은 광주권번 박영구선생에게 배웠다¹⁾. 그리고 기생이나 기생을 가르친 춤선생에게서 춤을 배웠던 원로 무용인들은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무용인들에게 춤을 이어주었다. 이러한 춤 선생에게서 배운 궁중무와 민속무가 계승, 발전되어서 현대의 한국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제시대 기생의 춤은 한국무용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연구가 미흡한 것은 일제시대 기생조합과 권번에서 기생들이 추었던 춤들이 요리집에서 여흥거리의 춤으로만 인식되어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춤을 담당한 기생들이 전통적으로 낮은 사회적 신분을 가졌고 낮

1) 구회서(1985), 『한국의 명무』, 한국일보사, pp.26~156.

은 사회적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들의 춤이 여흥의 자리에서 흥을 돋우어 주기 위해서 추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비하(卑下)하여 기생의 춤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그들의 춤이 예술적 정신을 표현한 무대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기생의 춤을 악(樂)의 총체적 개념 속에서 보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의 춤을 여기(餘技)의 하나로서 부속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생과 기생의 춤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선대(先代) 우리 춤의 주역이었고, 우리의 춤 활동이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기생의 춤 속에는 수백, 수천년을 이어오면서 걸러지고 다듬어진 우리춤의 정신이 담겨있다. 또한 기생춤을 비하시킨다 하더라도 현대 한국춤은 - 최승희와 조택원이 그랬듯이 - 기생들의 춤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일제시대 기생과 기생의 춤 활동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일제시대 초반 1910년대의 기생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룰 시기로 본다면 1900년대 말에서 1910년대 중반이다. 기생조합의 시기는 전통시대 직후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기생의 조직과 활동방식이 전통시대와는 다르게 재편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기생들의 연주 방식, 연주 종목도 살펴볼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국춤사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러나 엄연히 존재했던 일제시대 기생조합과 기생의 춤을 조금이나마 밝혀보고자 한다.

II. 기생조합의 성립

1. 한성기생조합소

기생조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09년 4월 1일 한성기생조합소가 문천군의 기금을 위하여 자선연주회를 연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생조합의 성립은 1909년 4월 1일 이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기생조합의 성립은 1908년부터 일제의 의해 준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隆熙 二年 妓生及娼妓에 관한書類綴] 警務甲種 記録 28號(이하 경무갑종 기록 28호라 칭한다. - 필자)에 수록되어 있다.

기생조합의 성립은 일제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되었는데, 1908년 9월 15일에 ‘기생 및 창기 단속시행령 제정건’²⁾, 같은 해 9월 25일 기생과 창기를 구분하여 경시청령 제 5호의 ‘기생단속령’과 경시청령 제 6호의 ‘창기단속령’이 제정되었었다. ‘기생단속령’ 제 2조에 의하면 ‘기생은 경시청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조합을 설하고 규약을 정하여 경시청에 인가를 수함이 가함’이라고 했고, 곧 이어 1908년 10월 6일 ‘기생 및 창기 단속령 시행 심득(心得)’³⁾이 내려졌다. 그러므로 경시청의 명령에 의해 1908년 9월 25일 이후에서 1909년 4월 1일 사이에 한성기생조합소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생조합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광고] 문천기금을 위하여 한성기생조합소에서 양력 사월 초일일 위시하여 한 십일 연주하와 다소간 기부하올대 원각사 성의를 더욱 감사하와 자에 공포함. 한성기생조합소 백.’(대한매일신보 1909. 4. 1)

‘[妓組演奏] 기생조합소에서는 該所 경비에 보충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아조현 원각사에서 연주회를 행한다더라.’(大韓民報 1910. 2. 22)

‘[孤院 演奏 續開] 기생조합소에서 고아원의 연주회를 설행한다는데 위치는 신문내 「원각사」로 설정하고 구연극을 행할 차로 연극의 재료는 궁내부에 청구하고 내 14일 위시하여 1주일을 설행한다더라.’(황성신문 1910. 4. 10)

1910년 2월 22일 기사에 기생조합소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주회를 한다는 것은 기생조합소의 운영자금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생조합소가 스스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연했다는 것은 기생조합소가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는 시설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1일자의 문천군 기금을 위한 연주회와 황성신문 1910년 4월 10일자의 기생조합소에서 고아원 후원연주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연주회들은 1907년 12월 14일 궁내부의 기생들이 처음으로 했던 고아원 후

2) 경시청이 발행하는 인가증, 각종 여행이나 공연의 경우 경시청의 허가증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도록 한 법령이다.

3) ‘기생 및 창기 단속령 시행 심득’이란 기생 및 창기 단속령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전국의 각 경찰서와 경찰분서로 하달되었다. 경시청(警視廳)훈령(訓令) 제 41호, 융희 2년 10월 6일1부. 노동은(1994), “노동은의 우리나라 음악사교실 IX”, 『낭만음악』 가을호 통권 24호, 서울: 낭만음악사, p.31.

원 연주회의 전통을 기생조합소가 잇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세 기사를 종합해보면 기생조합소는 장악원 여악 체계가 실제로 폐지된 후에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단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생조합소가 기생들의 대외 창구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람회의 기생』 일본인이 발간하는 조선일일신문사(朝鮮日日新聞社)에서는 아국(我國) 妓生 팔명 及 樂工 육명을 일본박람회에 송치(送致)하기 위하여 일작(日昨)에 기생조합소와 교섭계약하였는데 위선(爲先) 고금(雇金)은 일천오백원을 급여(給與)하고 매인(每人)의 의가(衣價)는 이십원식(式) 지급(支給)한다더라(황성신문 1910. 4. 14).

일본박람회에 보낼 기생을 뽑기 위해 조선일일신문사가 기생들의 대표성을 띠는 기생조합소와 교섭하여 계약한 것이었다.

이때 기생 뿐만이 아니라 창기에 대해서도 명령이 내려졌으니 기예를 파는 妓生과 매춘녀인 娼妓를 일체의 통제하에 놓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생단속령은 1910년 8월 13일 통감부 경무총감부령으로 확대하여 전국에 적용 조치를 단행하였다⁴⁾. 이제 전국의 기생들이 기생단속령에 따라 ‘기생조합’으로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평양에서도 예기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월선이는 평양 성장으로 열두살에 기생이 되었고, 열여섯살에 평양 예기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간사가 되어 ...’⁵⁾라 했는데 월선은 1914년에 이십이세라 하였으니, 역산하면 1893년 생이다. 월선이 평양예기조합을 설립했던 열여섯살은 1908년인 것이다. 1908년에 평양에도 기생조합이 설립된 것이었다.

『평양예기의 신면목』 ... 갑종 예기들은 불가불 기예가 없어서는 도저히 못될 일을 깨닫고 평양기생조합소장 강유문(康愈文)씨는 현금 영입하는 기생으로 하여금 기예를 배우기에 열심 중 ... (평양통신)’ (매일신보 1912. 3. 1).

『대구화류계 終境』 근래 대구에는 화류사회가 대발전하여 조합소 기생이 3백삼십명이요 요리옥이 십칠개소인데 ... (후략)’ (매일신보 1912. 2. 3).

『연극이나 하여볼까』 인천용동기생조합소(仁川龍洞妓生組合所)에서는 군

4) 노동은(1994). 앞글. p.32.

5) 매일신보, 1914. 2. 17 월선(月仙)의 기사 중

일에 영업이 부산하여 오는 삼십일이나 혹은 그 이튿날부터 인천축항사(仁川築港社)를 빌려 연극을 한다는데 …(인천지국)’(매일신보 1912. 6. 28).

『妓生組合 義捐 - 기생조합의 의연』 개성군 남부면 도조리 옥정동 연극장에서 … 이십칠일부터는 당군기생조합(當郡妓生組合)에서 기생연주회를 실행하였는데 매일 관광(每日 觀光)자는 삼사백명에 달하고 각 요리점에서 연조금이 다수하였는데 …(개성지국)’(매일신보 1912. 10. 1).

이상은 평양, 대구, 인천, 개성의 기생조합소 혹은 기생조합의 연주회와 技藝 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명칭은 ‘기생조합소’가 정식 명칭이나 약식으로 ‘기생조합’이라 하기도 했다. 위의 조합들은 대도시의 기생조합소로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소가 조직되었고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소가 생기는 것은 각 지방경찰서의 명령이 있었고, 지방교방청 출신의 기생들이 민간에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지방 감영에 속해있던 교방청이 한일합방과 함께 감영이 없어지면서 교방청도 없어졌고, 지방 관기들이 방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기생조합소를 결성하고 가입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기생의 모든 활동은 경시청이 관할경찰서를 경유하여 와카바야시(若林賚藏)경시총감에게 보고되었다. 각종 회의 내용도, 조약 개정도, 치료소의 검진보고서도, 결산보고도, 공연활동도, 순회연주 등도 모두 보고와 허가가 있어야 했다. 이렇게 관기제도가 없어지고 기생조합소가 생긴 약 3년간의 일련의 과정들은 일본의 정치적인 제도 개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시킨 것이었다.

2. 유부기와 무부기

기생조합소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새로운 경향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무부기들의 등장이다. 무부기(無夫妓)란 유부기(有夫妓)에 對한 말로 기부(妓夫 - 포주)없이 기생영업을 하는 기생이다. 원래 有夫妓와 妓夫(기생서방, 포주)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중종 2년(1502) 丁卯 7월 壬子에 女醫에게 지아비가 있었다』. 『인조 7년(1629) 己卯에 관기에게 서방이 있었다』. 숙종 때 서적인 『典錄通考』에 ‘樂을 익히는 날에 결석하는 기녀는 그 서방까지 추문해서 죄를 과한다’고 했다. 영조 20년(1744) 甲子에 나온 『續大典』에 ‘樂을 익히는 날에 결

석한 기녀는 그 서방까지 추문해서 죄를 다스린다'고 했다. 기생의 의식주는 모두 기생서방이 해낸다. 그리고 고객이 있으면 그 밤을 손님에게 양보하고, 없으면 잠자리를 같이 한다. 당초에는 官妓를 설치하고 서방 가지는 것을 금했었는데, 뒤로 내려오면서 점점 해이해져서 기생도 서방을 가지게 되었다. 기생이 서방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조 중엽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⁶⁾.

그런데 조선 말에 기부의 횡포가 심각했던 것 같다. 매일신보 1912년 8월 15일 字에 '너 기생을 나갈려면 유부기(有夫妓)가 소원이냐 무부기(無夫妓)가 소원이냐 할진데 나는 무부기로 나간다하겠소. 기생은 일반이라하겠지마는 인권 자유(人權自由)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압제와 강제받는 유부기가 될 병신이 어디 있을까요'라고 했다. 또 다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부들에 대해서 '금하선생님은 남다른 포부를 가지시고, 그 사회의 부조리한 점을 극복하고자 마침내 서울 다동(茶洞)에다 조합을 새로 개설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다동조합'의 시작이다. 포주에게 매이지 않은 자유의 몸인 기생 '다동조합'은 종래의 부조리와 모순을 크게 쇄신한 이른바 '무부기조합(無夫妓組合)'의 시작이다⁷⁾라고 하였다. 포주의 활동이 惡德하고, 포주에게 매여서 기생들이 당하는 부조리와 모순이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다 못해 극심했던 포주를 피해 무부기가 되려는 기생이 생겨났다.

『도청도설』 요사이 별 소문이 있습니다. 기생으로 서방있는 나라는 세계 만국에도 없고 조선으로 쳐도 이왕에는 기생서방이라고 하는 것이 없더니 ... 이것을 개탄히 여기고 서방 없이 기생노릇(無夫妓)하게 하여 몇백 년 타락하였던 화류계를 한 번 개량할 차로 주선을 한다더니 요사이에 필경 진홍(眞紅)이라 하는 평양기생이 서방 없이 영업하겠다고 청원을 하여 인허까지 얻고 장차 인허를 얻을 기생이 셋이 있다함디다'(매일신보 1912. 5. 22).

『사면팔방』 근일에 무부기가 점점 확장이 되어 평양서 손꼽아가던 기생이 모두 올라와서 영업장을 맡는다지. 「茶洞生」 평양기생도 많이 올라 왔으려니와 이왕 유부기로 가야금 잘 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던 산월(山月)이도 무부기영업장을 맡았다는걸. 「一經頭」 그나 그뿐인가. 시곡기생으로 성명이 일시 자자하던 룡선(弄仙)이도 무부기영업장을 맡았는데

6) 이능화(1992),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pp.436~437.

7) 김자야(1995), 『내사랑 백석』, 문학동네, p.46.

… 남도 기생이 각립하는 것도 관계치 않소. 천하 이치가 처음에는 호이
면 나중에는 합하는 법이니 각립을 한번 한데도 공부만 잘하면 필경은
한데 단제되는 날이 있어 무부기조합이 확실히 될줄로 아오. 「主務」
(매일신보 1912. 10. 23).

무부기의 수는 점차 늘어났고, 대개는 지방 출신의 기생 - 향기(鄉妓)들이
무부기로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기생을 관리 감독하는 경찰서에서
도 찬성하고 있었다. 이들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지만 예기 뿐만이
아니라 창기들의 경우도 기부에 의한 기생영업을 금지했던 것이다. 또한 무부
기들이 증가하는 데에는 정악전습소 분교실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악
전습소는 무부기들을 모아 궁중에서 행하던 여악 전반을 가르쳤던 것이다. 무
부기를 모집하는 광고⁸⁾가 있었고, 무부기 사십명이 기예공부를 하였다.

「正樂의 分校室 - 정악전습소분교실에서 무부기일동을 열심 교수」 조선
정악전습소분교실(朝鮮正樂傳習所分校室)에서는 무부기(無夫妓)련심(蓮
心) 등 사십명을 열심교수하는 중인데 그 과정을 가사, … 등 인데 교사
제씨도 열심하려니와 무부기들은 불철주야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한다더
라(매일신보 1912. 8. 29)'.⁹⁾

궁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여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정악전습소
에서는 분교실을 만들고 무부기들을 모아 여악을 가르쳤던 것이다. 무부기들은
궁중에서 연주하고 가르치던 든든한 선생 밑에서 예기(藝妓)로서 학습할 수 있
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부기 뿐만이 아니라 시곡기생들에게도 여악을 가르쳤다.
'근일에 남부 시동기생(時洞妓生)등이 조선음악을 기어히 발달할 목적으로 그
전습소에 대하여 청원하고 견습할 처소를 지금 일신수리하는 중이라더라.'⁹⁾는
기사가 있다.

이렇게 기생들 스스로도 기부에 얹매이지 않고 정악전습소에서 무부기를 모
아 가르치기까지 하니 무부기는 점점 많아졌고 하나로 모이기에 이르렀다. 무
부기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8) 매일신보, 1912. 2. 7.

9) 매일신보, 1912. 5. 22.

3. 광고조합과 다동조합

1909년 경시청의 명령에 의해 기생조합소가 만들어지고 3, 4년이 지나면서 기생과 기생의 활동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1912년 10월에서 1913년 2월 사이에 설립된 광고, 다동조합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광고, 다동조합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종 말년에 오면 ... 기녀는 주로 정재를 당하여 각처에서 선상(選上) 되었으나 어느 곳보다 평양 기생이 많이 상경하였다. 진연에 참가하여 정재가 끝나면 하향(下鄉)하는 기녀도 몇몇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대로 서울에 머물면서 기업(妓業)을 차리는 것이 상례가 되었던 것이다. 향기(鄕妓)가 서울에서 기업을 행하는 자는 대개 ‘무부기(無夫妓)’였고, 경기(京妓)는 또 포주가 있는 ‘유부기(有夫妓)’들이 많이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정악원의 학감 하규일¹⁰⁾이 무부기를 모아 무부기조합(組合)을 만들고 이를 ‘정악전습소 분교실’이라 하여 다동(茶洞)에 분치(分置)하니, 이것이 이른바 무부기조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들은 조합을 따로 만드니 이를 이른바 유부기조합(有夫妓組合)이라고 불렀으며 광고(廣橋)에 있어 광고조합(廣橋組合)이라 칭하였다. 무부기 조합은 배후에서 친일파 송병준이 지원하고 전면에는 하규일 임파를 내세워 교도(敎導)에 당하게 하였고 후에 다동조합(茶洞組合)이라 고쳐 불렀다. 비록 기생조합으로 선수(先手)를 빼앗겼으나 광고조합은 경기(京畿) 기생이며 더욱 약방(藥房) 기생의 후신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향기의 집결인 다동조합을 비애하니, 다동조합 역시 지지 않고 기생은 매일반인데 원조가 무엇이냐고 대들었던 것이다’¹¹⁾.

이 설명은 대개 일치하고 있다. 앞 절 II. 2. 유부기와 무부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부기들은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조합이 성립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정악전습소 분교실에서 무부기들에게 궁중에서 가르치던 춤과 소리를 가르치기까지 하니 무부기들은 하나로 모이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다동조합과 광고조합이 설립되었다.

10) 河圭 : 1867(고종 4) ~ 1937 근세 가곡의 거장. 서울 출신으로 작은 아버지 중곤(仲鰓)에게 가곡을 배운 다음, 중곤의 스승인 최수보(崔守甫)에게 사사하여 대성하였다.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 학감, 1912년 조선정악전습소 상다동 여악분교실장을 겸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12년에는 대정권변을 창립하고, 1924년에는 조선권변을 창립하였다. (정문연 간, 민문백 23권, p.703)

11) 대한민국예술원(1975). 『한국예술사 근세편-연극, 무용, 영화』. 문예진흥원, pp.429~430.

『기생조합의 새 규칙』 경성에서 다동과 광고에 기생조합을 조직하고 조합규약을 정하여 두 조합이 모두 당국에 인가를 받았으나 그 목적하는 바는 이왕 폐습을 선량하도록 고치고 품성을 함양하며, 영업에 발달과 영업자 사이에 친목을 기약함에 있으며, 또 화채를 일정하고, 특별히 거짓서방 있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며 단독영업하는 일을 목적하는 것이 내지 예기조합과 대강 같은 방법으로 영업할 일을 정하였다더라'(매일신보 1913. 2. 20).

다동조합과 광고조합은 1913년 2월 20일 이전에 당국에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생조합의 설립 목적은 첫째, 폐습을 선량하도록 고치고 품성을 함양하며, 둘째, 영업의 발달을 위하고, 셋째, 영업자 사이 즉 기생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고, 넷째, 화채(화대, 연주비)를 일정하게 하고¹²⁾, 다섯째 거짓서방 있는 것을 허락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거짓 서방이란 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기부 없이 단독영업을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무부기조합을 결성할 당시 규모와 조직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주산월(朱山月)¹³⁾과 금주(錦珠)¹⁴⁾,련심(蓮心)¹⁵⁾ 등이 주도했다고 한다. 이상에서 다동조합이나 광고조합이 만들어진 시기는 1912년 10월에서 1913년 2월 20일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고, 다동 양조합은 1908, 9년에 만들어진 기생조합소와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광고, 다동기생조합이 기생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미 한성기생조합소 등 각 지방에도 官(일제)에서 주도하는 기생조합소가 있었으나, 이를 두고도 기생들은 새로운 기생조합을 만든 것이다.

둘째는 예기(藝妓)와 창기(娼妓)가 섞임에 따라 예기 스스로 자신의 고유성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즉 진주기생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갑종기생들만 모아 기생조합을 설립하고 매창매음을 구별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생들 스스로

12) 이에 관한 광고가 있다. 『妓生花代 中 改定하였기로 廣告함』 일시 일환 오각. 이시 이환 오각. 삼시 삼환. 차 외에 일시를 가하면 오각씩 가함. 인력거비는 차한에 부재함. 광고기생조합 고백'(매일신보, 1914. 1. 17).

13) '저는 본래 어려서부터 기생으로 나왔는 까닭으로 위위 기생노릇을 하는 바에는 한 번 개량을 하여 불까하고 무부기조합을 창설하였읍니다'(매일신보, 1914. 1. 29 朱山月의 기사 중).

14) '금주는 평양기생이라. 칠팔년 전에 경성으로 올라왔는데 ... (중략) ... 재작년 무부기조합 창시할 적에 발기인의 한 사람이 되어 사업을 일으키고, 요사이 그 조합을 확장하기에 열심하라 하던가. ... (후략) ...'(매일신보, 1914. 5. 15 금주(錦珠)의 기사 중).

15) '... 자 그러하면 당초에 무부기라는 것을 처음 발기를 하여 고심열성으로 주선했던 련심(蓮心)이가 인제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 모양이구려 ...'(매일신보, 1912. 10. 23).

매창매음을 구별하는 일에 민감했던 것이다. 다음의 사건이 있었다.

『독자구락부』 어떤 요리점에서는 은근자를 무부기라고 속여 기생들과 같이 놀게할 즈음에 마침 정작 무부기가 와서 보고 요리점 주인과 일장 풍파가 난 후로 기생들이 일제히 안가기로 공론을 하였더니 주인이 기생 조합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빈 후에 다시 가기로 공론을 하였는데 그 요리점은 은근자요리점이라나요. 이후부터는 그런 마음을 좀 씻었으면. 「확실히 아는자」(매일신보 1913. 9. 9).

이 사건을 보면 藝妓들이 스스로 자존심을 갖고 있었으며, 娼妓와 차별성을 두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창기들이 수입을 올려보고자 기예를 배우고 극장에서 흥행하려 했는데 남부경찰서에서 이는 규칙-예기와 창기를 구분하는 규칙-에 위반하는 일이라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¹⁶⁾. 또한 정악전습소 분교실이 무부기들을 가르침으로 예기들의 격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기부 문제의 극복하기 위하여 무부기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앞 절 2. 유부기와 무부기의 항목에서 말한 것처럼 기생들이 유부기로서 겪는 부당함을 극복하고자 무부기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었고, 정악전습소 분교실이 무부기조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상은 광고, 다동조합이 한성기생조합소와 다른 차이점이면서도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성기생조합소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한성기생조합소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한성기생조합소가 기생들에 대해서 장악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생조합의 창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동, 광고조합이 새로 창립되었다는 것은 관에서 주도한 기생조합이 민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이 생기는데 대구기생조합(매일신보 1913. 2. 13), 진주기생조합(매일신보 1913. 5. 16), 공주기생조합(매일신보 1913. 8. 17), 의주기생조합(매일신보 1913. 9. 27)이 다동, 광고조합의 설립에 고무받아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이 설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나 기생조합이 새로 만들어지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한성기생조합소 시기에 경찰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던 기생조합소와 공존하고 있었다. 이제 한성기생조합

16) 매일신보, 1913. 11. 7.

소의 시기를 지나 기생조합의 시기가 된 것이다.

III. 기생조합의 현황과 교육

1. 기생조합의 현황

그렇다면 기생조합이 설립되면서 어떤 기생조합들이 있었는가. 기생조합의 대표격인 광고조합과 다동조합은 그 만들어진 과정을 이미 앞 절에서 설명하였다. 광고조합은 경기(京妓)를 중심으로 광고(廣橋)에서 만들어졌으며, 다동조합은 평양 출신 중심의 향기(鄉妓)를 중심으로 다동(茶洞)에서 1912년 10월부터 1913년 2월 사이에 만들어졌다. 광고조합은 약방기생의 후신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었으며, 다동조합은 무부기조합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15년 매일신보¹⁷⁾에 전 조선신문기자대회의 기자들이 광고조합과 다동조합의 출연습을 구경하고 소감을 말하였는데, 광고조합과 다동조합의 특색을 알 수 있다.

‘경성 화류계에서는 금년 가을의 공진회에 훌륭한 여흥을 행하여 … 서로 역사가 다른 것과 같이 각기 특색이 있으니 광고편은 수 백년래의 역사가 있어 가무는 순수한 고대식 그중에도 고대의 어떻게 말할수 없는 우미한 곳이 있고, 다동편은 비유하면 진보주의 무엇이던지 새것을 한 번 보이라고 애를 쓰는 모양이라 춤에도 다소 개량을 더하여 변화를 많이 하고 의상도 새것을 쓰며 빗깔을 복잡하게 하는 등 시대의 요구에 응하여 점차로 새법을 내는 것도 좋고 … (후략) …’ (매일신보 1915. 4. 27).

광고편이 수 백년래의 역사가 있다고 한 것은 광고조합이 도성(경성) 기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무는 순수한 고대식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도성에서 妓業을 하면서 궁중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기생들이라 궁중의 전통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예술적 특성을 갖고있던 것이다. 반면 다동편은 춤도 다소 개량하고 의상, 빗깔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다동조합이 향기(鄉妓)들이 모여 경성에서 조직한

17) 매일신보, 1915. 4. 27.

기생조합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성의 여러 기생 중에 이복을 집중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롭고 좀 더 색다른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예술적 특성을 갖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창조합(新彰組合)이 있다. 신창조합의 창립연도는 정확지 않다 다만 그 연원을 살펴보면, ‘구한 말에 삼패는 경성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광무(光武) 연간에 신태휴(申泰休)가 경무사(警務使)로 있으면서 남부의 시동(時洞)을 삼패의 거주구역으로 정했다. 삼패의 집을 상화실(賞花室)이라 붙여주었다. 뒤에 자작 모씨의 후원으로 신창조합(新彰組合)이 창립되고 삼패도 기생이라 불렀다.’¹⁸⁾고 했는데 신창조합의 창립연도는 정확지 않다. 광무(光武) 연간에 時洞을 삼패의 거주구역으로 정했다고 하니, 1907년 순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시동(時洞)에서 기업(妓業)을 차려 계속 활동했던 것이다. 그런데 1908년 ‘時洞藝妓’의 주최로 연주기록¹⁹⁾이 있다가 1912년의 모든 연주에서는 시곡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연주 기록이 있고, 단성사에서 약 한달여의 극장 연주²⁰⁾도 있었다. 이렇게 장기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직력이나 기획력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은 시곡의 기생들이 이미 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연주였던지, 아니면 조합을 이루지는 않았으나 시곡에 오래전부터 무리를 지어 활동했기 때문에 조합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조직력을 갖었기 때문에 장기 연주가 가능했을 것이다. 신창조합이라는 정식명칭은 매일신보 1913년의 5월 8일 시곡기생조합 이름으로 시곡기생연주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시곡기생들은 소리에 능했던 것 같다. 1915년 9월 24일 매일신보의 기사에 ‘좌창과 입창은 원래 시곡조합기생의 특별히 능한 것으로 모두가 아는 바이어니와 ...’라 하였다. 신창조합의 출신이 삼패였다고 하는데, 삼패가 원래 잡가를 주로 불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대동조합이 있었다. ‘다동 광고 두 조합이 양립해 있든 사이에 소규모의 대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에서 무용지도를 담당한 분이 황웅이다...’²¹⁾라는 것으로 보아 대동조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 이능화 저 이재곤 역,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p.443.

19) 대한매일신보, 1908. 6. 30

20) 매일신보, 1912. 5. 15, 매일신보, 1912. 6. 19

21) 김천홍(1977). “궁중무 - 그 주역들, 기녀사회 궁중무의 지도자”, 『춤』 1월호, p.39.

지방에도 기생조합이 있었다. 앞절에서 말한 대구, 진주, 공주, 의주의 기생조합이 있고, 평양예기조합의 가무연주회(매일신보 1913. 9. 3), 개성기생조합의 기생연주회(매일신보 1912. 10. 1), 통영의 기생조합소 설립(매일신보 1915. 1. 30), 전주예기조합(매일신보 1915. 9. 16), 순창기생조합(매일신보 1915. 9. 24), 해주 기생조합(매일신보 1915. 11. 28)이 있었다. 그리고 기생조합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각 지역에서 기생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선천의 기생(매일신보 1913. 11. 8), 草梁의 기생(매일신보 1914. 11. 11)을 볼 수 있다. 이외의 지방에도 기생조합이 있었을 것이나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을 따름일 것이다. 그리고 기생조합이 없다고 기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기생조합의 교육

1) 교육 기관

1921년 日人音樂學者 田邊尙雄에 의해 조사된 『중국·조선음악조사기행』²²⁾에는 평양기성권번 학예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기생조합 시기에 기생의 기예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자료가 없다. 우선 기생교육기관이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기생조합에서 童妓들을 가르친 것은 분명하다.

‘십오세에 경성으로 올라와 오궁동 김길현의 집을 처소로 정하고 광고기생 조합에서 가무를 배우는데 …’(매일신보 1914. 2. 7 관홍(蘭紅)의 기사 중)

‘… (전략) … 푸른 살점과 흰귀 뒤에는 흑백이 분명하여 미인의 태도를 지었으며, 겸하여 요사이도 다동조합에서 가무를 열심히 연습하는 중인고로 … (후략) …’(매일신보 1914. 5. 7 월희(/姬)의 기사 중)

‘… (전략) … 시곡의 한낱 광채는 룡옥의 빛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로다. 매일 아침이면 여러 기생을 지휘하여 모든 기예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매일신보 1914. 5. 1 룡옥(弄玉)의 기사 중)

『진주기생의 졸업식』 경상남도 진주(晉州)는 자고로 기생 많기로 유명한 곳이나 … 작년에 노기 서금련이가 이것을 개탄하여 기생조합을 설립하고 룡객 중 유명한 김창조를 고입하여 기생들에게 음율을 가르치더니 본

22) 田邊尙雄(1970). 『중국·조선음악조사기행』, 동경: 音樂之友社.

월 칠일에 수업식을 행하였는데 …’ (매일신보 1914. 3. 12)

란홍, 월희의 기사에서 모두 다동조합이나 광고조합에서 기예의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통옥의 기사를 보면 신창조합에서도 아침부터 기예 교육이 있었고, 진주기생조합에서도 김창조라는 선생을 불러 음률을 가르치게 했다. 또 진주기생조합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졸업식을 했다고 한다. 모두 기생조합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다. 그러나 평양기생조합은 기생학교가 명시되어 있다.

『平壤料理店の 競争 - 평양요리점의 경쟁』 평양부(平壤部)에 조선요리점(料理店)으로 저명한 대성관 주인 강유문(大成館主人康愈文)씨가 … (중략)
… 강씨는 조합장을 사임하고 그 대에 기생학교 교사 이기수(妓生學校教師 李基洙)가 피임되었다더라(평양지국)’ (매일신보 1913. 1. 15).

기생학교 교사였던 이기수가 기생조합장이 되었다고 하니, 평양기생조합에는 기생학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양의 기생학교는 특별한 경우이고, 이 시기에 기생 교육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았고, 기생조합에서 필요한 과목의 선생을 모셔와 기생들에게 기예를 가르쳤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기생의 수업연한은 몇 년인지, 수업료는 얼마나 냈는지, 규율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2)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기생들이 무대나 놀음에서 연주하는 기예들이 기생 교육의 내용일 것이다. 다행히 정악전습소분교실에서 기생들에게 가르친 교육내용이 있다.

『正樂의 分校室 - 정악전습소분교실에서 무부기일동을 열심 교수』 … 사십명을 열심교수하는 중인데 그 과정을 가사, 국어, 수신시조, 잡가, 범무, 승무, 거문고, 가야금, 양금, 생황, 단소, 습자, 도화, 내지춤, 사미센 등인데 교사제씨도 열심하려니와 무부기들은 불철주야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한다더라’ (매일신보 1912. 8. 29).

정악전습소분교실에서 가르친 과목은 크게 교양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교양과목은 국어와 습자이고, 실기과목은 소리에 가사, 수신시조, 잡가이고, 춤에 범무, 승무와 내지춤이고, 악기에 거문고, 가야금, 양금, 생황, 단소, 사미센이다. 내지춤과 사미센은 일본인을 위한 과목이고, 도화 과목이 있다. 춤에서 승무 과목이 있는데 정악전습소에서 正樂이 아닌 승무를 가르쳤다는 것은

이미 민속춤이 기생의 종목으로 일반화됐다는 증거이다. 또 승무와 함께 광고 조합에서도 내지춤, 사미센 과목을 가르쳤다²³⁾는데, 기생의 기예교육이 시류(時流, 유행)에 쉽게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기생조합 시기 다동조합이나 광고조합에서도 비슷하였을 것이다. 옛 기생이 ‘시서화(詩書畵)’와 ‘가무음률(歌舞音律)’을 익혔던 것처럼, 각 조합의 교육내용도 같은 틀로 가르쳤다. ‘시서(詩書)’에 해당하는 것은 국어와 습자이고, ‘화(畵)’에 해당하는 것은 도화(圖畵)이고, ‘가(歌)’에 해당하는 것은 가사와 수신시조, 잡가이고, ‘무(舞)’에 해당하는 것은 법무, 승무, 내지춤이고, ‘음률(音律)’에 해당하는 것은 거문고, 가야금, 양금, 생황, 단소, 사미센이다.

그런데 춤 종목에 있어서 법무, 승무, 내지무만 교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생조합시기의 연주 기록을 보면 다양한 궁중무, 민속무, 기생무와 내지무를 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예 종목은 다음 장 IV. 2. 연주종목에서 열거하겠다.

3) 기생조합의 춤 선생

기생조합 시기의 춤선생은 궁중연주의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기생들과 마찬가지로 장악원 출신의 악사나 악공이었으니, 이들도 생업을 위해 연주활동을 하였고, 기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노기(老妓)들이 동기(童妓)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들의 성명은 전해지지 않고, 춤만 남아 전해질 뿐이다.

성명을 거론할수 있는 춤 선생은 ‘서울에서는 다동기생조합(茶洞(茶居洞)妓生組合), 광고기생조합(廣橋妓生組合) 등으로 결성되어 다동기생조합은 하규일 옹께서, 광고기생조합은 별감(別監) 출신이던 장계춘(張桂春)²⁴⁾ 옹께서 사범으

23) 매일신보, 1914. 12. 12

24) 張桂春, 1848(헌종 14)~1946.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경기소리의 명창. 사계(四契)축의 소리 명창인 조기준(曹基俊)과 추교신(秋敎信)의 제자이며 특히 가사(歌詞)와 시조에 뛰어났으며 특히 여창가곡을 골게 불렀다 한다.(민문백 19권, p.125.) ‘장옹은 구한말 장악원 계통의 출신으로 여창에 능통해서 여창 가곡 가사 시조 등을 기녀들에게 전담 지도했는데 그의 문학생들이 생존해 있어서 옛일을 회고하곤 한다. 광고조합 후의 무용은 장계춘옹과 보조역의 최춘서옹이 학습시켰었는데 궁중무용의 일부를 지도했고 다동조합 축의

로 지도했었다’²⁵⁾라고 했으니 하규일과 장계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동조합에서 ‘다동 광고 두 조합이 양립해 있던 사이에 소규모의 대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에서 무용지도를 담당한 분이 황용이다. 그 뒤 이 조합이 종로조합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지도했고 ...’²⁶⁾라는 것으로 보아 황용이라는 선생이 있었다.

또한 평양예기조합의 이기수(李基洙)(매일신보 1913. 1. 15), 진주기생조합에서 초빙한 선생 김창조(매일신보 1914. 3. 12)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한성준은 1908년 원각사에서 활동한 이래로 제자들에게 승무 만을 가르쳤고, 1920년 이후 나음대로의 민속무용을 체계화되면서부터는 승무와 함께 다른 민속무용도 가르쳤다. 그는 또한 茶洞妓生組合, 漢城妓生組合 시절에도 기생들에게 여러 가지의 무용을 가르쳤는데 ...’²⁷⁾라 하였으니 한성준선생이 있다.

그리고 춤선생으로 노기(老妓)가 있었다. 노기가 동기(童妓)들에게 가무를 가르쳤던 것이다. 조산월(趙山月)은 1914년 당시 광고조합의 부취체이면서 ‘저는 기생 나온지가 벌써 십오년 동안이 되었으니 그간에 풍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기생치고는 제게 가무를 아니 배운 사람이 없으니 ...’²⁸⁾라 했다. 조선시대에도 각 지방마다 노기가 동기를 가르쳤으니, 그러한 방식을 따라 노기들이 기생들에게 기예를 가르쳤던 것이다.

IV. 기생조합의 연주활동

1. 기생과 기생조합의 연주활동

기생들은 이제 놀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극장에서 춤을 추게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원각사, 광무대, 연흥사, 단성사, 장안사 중 원각사와 단성사, 연흥사는 주로 판소리, 창극을 공연했고, 광무대와 장안사는 주로 재래의 가무를 공

춤과 거의 같았다고 한다’. 김천홍(1977). p.39.

25) 김천홍(1995). 『심소 김천홍 무악70년』, 민속원, p.114.

26) 김천홍(1997). p.39.

27) 정혜란(1987). “한성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43.

28) 매일신보, 1914. 2. 13. 조산월(趙山月)의 기사 중.

연했다”²⁹⁾고 하니, 광무대와 장안사에서 기생들이 궁중무와 민속무를 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판소리, 창극을 주로 했던 극장들에서도 기생들의 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철(玄哲)에 의하면 원각사의 상연 프로그램은 첫째과장이 官妓춤, 둘째과장은 걸립(乞粒)(농악), 셋째과장에 들어가서 「춘향전」, 「심청전」 등 판소리였다는 것이다”³⁰⁾라고 하였으니, 중심 프로그램인 판소리나 창극 이전에 기생들의 춤이 반드시 있었던 것이다. 1902년부터 1915년까지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조사한 기생조합과 기생의 연주 회수는 85회에 이른다. 극장무대의 연주일 경우 일반관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하는 연주인 만큼 관객에게 많은 호응을 받도록 연주 종목이나 연주 방식이 꾸며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극장연주회는 궁중의 뜰이나 민간의 놀이방, 마당에서 추어지던 춤들이 무대로 올라가면서 양식화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주회들을 분류해보면 연주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였다.

1) 기생조합 연주회

기생들이 했던 연주회 중에서 가장 비중있는 연주회는 기생조합의 이름을 걸고 하는 연주회일 것이다. 기생조합 연주회는 기생조합에 있는 기생들이 자신의 기예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발표회라고 할 수 있다. 또 각 기생조합이 자신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생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기예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주회는 한성기생조합소 시절에는 보이지 않고, 광고다동기생조합 시기부터 보이고 있다. 즉 기생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조합 활동이 시작된 기생조합 시기부터 기생조합 연주회가 있었던 것이다.

시곡기생연주회(매일신보 1913. 5. 8), 평양예기연주회(매일신보 1913. 9. 3), 의주 기생연주회(매일신보 1913. 11. 18), 다동기생조합연주회(매일신보 1914. 6. 2, 1915. 6. 17), 인천용동기생조합소연예회(매일신보 1914. 9. 22), 무부기가무연주회(매일신보 1914. 10. 28), 광고조합기생연주회(매일신보 1914. 3. 17, 1915. 5. 21)가 기생조합 연주회들이다. 이 연주회는 권번 시기에도 ‘온습회’라는 명칭으로 계속되었다.

29) 유민영(1982). 『한국극장사』, 한길사, p.26.

30) 이두현(1968).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출판부, p.32.

2) 고아원이나 학원의 후원연주회

고아원이나 학원의 후원연주회는 조산부양성소, 야간학교, 등의 어려운 재정을 도와 주기 위한 공연으로 기생조합연주회 외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연주회이다. 기생조합소 고아원 연주회(황성신문 1910. 4. 10), 광고기생조합 조산부양성소연주회(매일신보 1913. 3. 30), 평양기생조합 진명여학교 연주회(매일 1913. 10. 14)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연주회는 기생조합 이전에 1907년 12월 14일 경성고아원의 경비를 조달코자 관기들이 했던 연주회 이후 계속된 연주회이다. 어려운 교육기관을 원조하는 연주회는 마치 기생조합의 전통처럼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이재민 동정연주회

이재민 동정연주회는 기근이나 지진 등으로 이재민이 생겼을 때 이들을 조급이나마 구제하기 위해 하는 모금연주회이다. 이럴 경우 기생들은 연주를 하는 당일은 놀음에 나가는 것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연주회의 출연료도 받지 않았다. 또 기생들은 다소의 현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성기생조합소의 문천군 기근에 대한 연주회(대한매일신보 1909. 4. 1), 시곡신창기생조합의 앵도폭발과 동북구주이재민 구조를 위한 연주회(매일신보 1914. 2. 14)가 있다. 고아원이나 학원 후원연주회와 같이 일반에 동정을 일으키는 일에 대하여 기생의 자선심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기생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4) 찬조출연하는 연주회

찬조출연하는 연주회는 각종 행사나 여흥에 기생들이 기생조합 이름으로 혹은 기생 몇몇이 연주한 것이다. 무대 연주인 경우는 별로 없고 행사장의 공간이나 임시로 만든 무대에서 연주하였다. 연주의 주제나 규모, 방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루동궁의 생일잔치(매일신보 1912. 5. 11), 요리점의 낙성식(매일신보 1912. 6. 29), 관리의 환영회(매일신보 1912. 7. 5), 경회루의 남선시찰단 환영회(매일신보 1913. 7. 29), 개성습률대회(매일신보 1913. 9. 26), 지방신문지국의 초대회(매일신보 1913. 9. 28), 천장절기념 탑동공원대연주회(매일신보 1913. 11. 2), 경남공진회

연주회(매일신보 1914. 11. 6), 경성공진회(매일신보 1915. 9. 18~10. 30) 등에서 기생들이 연주를 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민간의 잔치나 놀음에서 혹은 관리들의 행사에 기생들을 불러 여흥을 마련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연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경회루의 남선시찰단 환영회(매일신보 1913. 7. 29)이다. 경회루는 경북 궁 안에 있는 누각으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그러나 민간실업가 주최의 남선시찰단 환영회를 경회루에서 했다는 것은 이미 왕조가 몰락하기는 하였지만 경회루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환영회를 경회루에서 하도록 허락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다만 경회루에서 연주한 기생들은 과거였다면 임금님 앞에서 연주한 것이니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또 평양의 한 변호사가 개최한 대동강주유회(大洞江舟遊會)(매일신보 1915. 6. 29)는 평양에서 옛부터 유명했던 大洞江船遊를 따라 한 것이다. 船遊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舟遊라 했는지 모르지만 호화롭기 그지없던 대동강선유는 평양의 유명한 풍류였다. 시대는 다르나 배 위에서 연주하는 기생들의 모습은 옛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잔치나 환영회나 공진회 등에 기생연주가 빠지지 않았으니 기생들은 가무를 익히고 연주하느라 몹시 바빴을 것이다.

5) 상설극장 연주회

상설극장연주회는 기생조합에서 활동하는 기생들 외에 극장에 전속하여 활동하는 기생들의 연주회이다. 이 시기의 상설극장은 원각사(협률사), 광무대, 연흥사, 장안사, 단성사, 황금유원을 들 수 있다. 상설극장의 연주는 상설연주회와 자선연주회로 나눌 수 있다.

상설연주회는 협률사가 소춘대유회의 공연 이후 1903년에 장기공연으로 처음 했었고, 이후에 극장들이 생기면서 상설연주회를 했던 것이다. 이 연주회에는 매일 몇백명 이상의 관객들이 구경하였다고 하니, 상설연주를 필요로 하는 만큼 관객들의 요구가 많았고, 극장업자들은 그 요구에 맞게 상설연주회를 열었던 것이다.

단성사 강선루 일행의 상설공연은 1912년 4월 21부터 6월 19일 까지 약 2개월간을 연주하였고, 매일 藝題를 바꿔서 연주하였다. 상설연주회의 연주는 기생

조합 기생의 연주와 거의 같으므로 입장료만 지불하면 요리집의 놀음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생들의 춤과 소리를 감상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상설극장에서 하는 자선연주회가 있는데, 상설연주를 고아원이나 학교, 혹은 이재민을 위한 자선연주회로 돌리는 경우이다. 광무대 동창학교를 위한 연주회(매일신보 1913. 9. 2), 장안사의 경성구회와 제생원 맹아부를 위한 연주회(매일신보 1914. 2. 8)가 그것이다.

또 지방 순회공연에 그 지방 예기조합과 결합하여 연주(매일신보 1913. 2. 26)한다든가 광무대창립오주년 기념연주(매일신보 1913. 9. 2), 장안사일주년기념연주회(매일신보 1914. 2. 25), 공주 금강관탁성식연주에 경성의 기생이 출연한다든가(매일신보 1913. 11. 6) 공연방식도 매우 다양하였다.

2 연주종목

그렇다면 1902년 ‘笑春臺遊戯’에서 관기의 춤이 처음으로 일반 무대에서 연주된 이후 기생조합 시기 1915년 까지 어떤 춤들이 기생들에 의해 연주되었을까. 1902년 ‘笑春臺遊戯’에서 관기들이 어떤 종목의 춤을 연주하였는지는 기록이 없다. 자세한 연주 종목은 1908년 광무대 주최 연주회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연흥사 주최 연주회(매일신보 1912. 4. 14), 단성사 주최 강선루일행 상설연주(1912. 4. 21~1912. 6. 19), 단성사 주최 앵도, 동북지방 이재의연연주회(매일신보 1914. 2. 10), 1915년 경성공진회연주회까지 중요한 연주회에서 연주했던 춤 종목을 <표 1>로 정리하였다.

이상에서 기생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기 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본다면 기생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상설극장의 전속 기생들이 주로 무대 연주를 하였다. 1908년 광무대 상설연주, 1912년 연흥사 상설연주, 1912년 단성사 강선루 상설연주회가 그러하다. 이때 춘 춤들은 1902년 ‘소춘대유희’에서 기생들에 의해 궁중무가 처음으로 무대화되기 시작하여 장악원 여악이 해체된 이후 무대에 정착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춤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생조합이 생긴 후에는 기생조합의 기생들이 무대화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14년의 단성사 연주와 1915년의 경성공진회 연주회이다. 종목

〈표 1〉 일제시대 기생조합시기의 춤 연주 종목

시 기		종 목
한 성 기 생 조합시기	향악정재	〈가인전목단〉, 〈향령무〉, 〈선유락〉, 〈무고〉, 〈검무〉, 〈학무〉, 〈항장무〉, 〈사자무〉
	당악정재	〈장생보연지무〉, 〈포구락〉
	민 속 무	〈승무〉, 〈한량무〉, 〈性眞舞〉, 〈승진무〉, 〈복춤〉
	새로운 춤	〈향용용무〉, 〈梨花舞〉, 〈矢射舞〉, 〈地球舞〉, 〈鶯蝶舞〉, 〈電氣光舞〉, 〈전기춤〉, 〈舞童〉, 〈八仙舞〉, 〈八仙女舞〉, 〈안악무(安樂舞)〉, 〈전기호접무(電氣蝴蝶舞)〉, 〈서민안락무〉, 〈현반도〉
기 생 조 합 시 기	향악정재	〈춘앵전〉, 〈무산향〉, 〈봉래의〉, 〈가인전목단〉, 〈선유락〉, 〈연화대무〉, 〈무고〉, 〈사고무〉, 〈검무〉, 〈검기무〉, 〈쌍검무〉, 〈만수무〉, 〈무애무〉, 〈아박무〉, 〈박접무〉, 〈관동무〉, 〈향령무〉, 〈봉래의〉, 〈사선무〉, 〈공막무〉, 〈점수무〉, 〈보상무〉, 〈춘광호〉, 〈현천화〉, 〈고구려무〉, 〈사자무〉, 〈항장무〉
	당악정재	〈포구락〉,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수연장〉, 〈오양선〉, 〈육화대〉, 〈최화무〉
	민 속 무	〈승무〉, 〈쌍승무〉, 〈남무〉, 〈성진무〉
	새로운 춤	〈혜풍유(淸風遊)〉, 〈여흥무〉, 〈鶯庭舞(鶯庭舞)〉, 〈철도축하무(鐵道祝賀舞)〉

의 수도 훨씬 많다. 궁중무는 34종목³¹⁾을 연주했는데 기생조합이 생기기 전의 10종목에 비하면 1910년대의 기생들의 춤 연주종목은 매우 다양하다. 광고, 다동 조합이 안정되면서 장악원 출신의 교사들이 궁중에서 추었던 춤들을 기생들에게 가르칠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15년 10월 3일에 조선철도 일천리 기념행사에 맞추어 창작된 「철도축하무(鐵道祝賀舞)」도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처음 선보였던 춤들이 1910년대에 다시 연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로 호응이 없었던 모양이다.

3. 기생조합의 춤의 변화

앞 절 IV. 1. 기생조합의 연주활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생의 무대는 놀음

31) 조선 말기에 연주되었던 정재 45종목에서 11종목만이 빠질 뿐이다

방 뿐만이 아니라 극장무대와 각종 여흥의 자리로 확대되었다. 주요한 관객은 왕족과 양반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로 바뀌었다. 무대도 궁전이나 놀음방이 아니라 극장무대와 놀음방으로 바뀌었다. 관객과 무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과 공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춤의 개념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궁중무의 경우 왕을 중심으로 한 儀式의 하나이면서 왕을 중심으로한 풍류로서 추어졌었다.

그러나 사설극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1908년 5월 28일 광무대 공연에 대해 주최측은 ‘聖世風流를 敎演擴張하여 兪君子의 性情과 眼目에 感發愉快케 玩賞品을 설비하였다’고 했으니 이들은 단지 兪君子들의 性과 情에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흥행연주를 한다는 것이다. 궁중에서 왕에게 정재로서 추던 - 재주를 獻하기 위해 추던 - 궁중무가 아닌 것이다. 관객들의 性과 情에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승무, 한량무라는 민속춤과, 지구무(地球舞), 이화무(梨花舞), 성진무(性眞舞), 시사무(矢射舞)라는 궁중에서는 추지 않은 새로운 창작춤까지 추었던 것이다. 이는 무대 흥행을 위하여 기생의 춤이 변신하고 있는 과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1912년 4월 단성사가 상설공연을 준비하며 ‘本社에서 從前의 妓生歌舞를 一新改良하여 文藝的 新演劇으로 本月 二十一日 爲始하여 興行하오니(藝題는 毎日 交替) 兪君子 貴婦人 一次 靑藍하심을 伏望’이라 했고, 덧붙여 ‘舊日 妓生の 歌舞를 改良함은 本社의 特色이라’³²⁾고까지 했다. 종전의 기생가무를 개량하는 것이 당시 관객에게 필요했던 모양이다. 단성사의 공연에 대해 ‘... 그러나 악공의 춤장단이 너무 느려서 관람자의 지리한 생각을 발케한 즉 아무리 전일의 습관일지라도 잇대와 인정을 인하여 좀 속하도록 개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³³⁾라는 평이 났다. 연주자나 관객이나 기생의 춤에 변화의 필요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1915년까지 - 궁중여악이 해체된지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 궁중무는 거의 그대로 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향악정재와 당악정재의 종목도 크게 변한 것이 없고, 한성기생조합소 시기에 새로 창작된 춤들이 기생조합 시기에는 거의 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라고 한다면 느린 장단의 춤을 줄이거

32) 매일신보, 1912. 4. 23.

33) 매일신보, 1912. 4. 26.

나 빼든가, 격식을 갖춰야 하는 춤은 빼든가, 대중들에게 익숙한 민속춤을 많이 춘다든가 하는 것이었다. 기생들에게는 아직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춤을 만들 능력이 없었다. 개혁적인 춤 개념을 내놓는 이³⁴⁾도 없었다. 기생들은 옛날에 배웠던 대로 춤을 추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V. 결 론

이상에서 일제시대 기생조합의 성립과정과 춤 연주활동을 부족하나마 살펴 보았다. 기생조합의 성립은 처음에는 일제에 의해 주도되어 기생조합소라는 명칭으로 조직되었으나 광고, 다동조합이 1913년 초에 설립되면서 기생조합 시기가 되었다. 기생조합은 기생들 스스로 조직되었으며, 기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부기가 중심이 되었고, 예기와 창기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먼저 기생조합소와 구분된다.

그리고 일제시대 기생과 기생조합의 춤 연주활동은 기생조합연주회, 학원이나 고아원을 위한 연주회, 이재민을 위한 자선연주회, 찬조출연 연주회, 상설연주회 등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며, 기생은 전문무용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특히 광고, 다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기생들의 춤 레파토리는 40종목이 넘는 궁중무와 민속무를 확보하였다.

기생조합을 무용사적으로 본다면 몇가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첫째, 기생조합은 구한말 1908년에서 일제시대 초반 1910년대 까지 기생들이 무용인(藝人)으로 입문하고 춤을 배우고 연주하던 활동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 장악원과 지방의 교방청을 통해 기생들이 활동했고, 기생조합 다음은 권번이 그 역할을 했다. 특히 일제시대全般 기생조합과 권번의 활동방식은 이 시기에 기생조합에서 거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생조합은 구한말에서 일제시대 초기까지 한국춤의 교육과 연주가 행해지는 곳이었다. 장악원이 폐지되고 전통시대에서 근대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기생조합은 기생들을 모아 춤을 가르쳤고 춤선생들이 모여 있었다. 또 기생조합을

34) 노베르의 춤개념처럼 개혁적인 춤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해 연주가 기획되었고, 창작춤도 만들어졌다. 특히 광고, 다동조합이 생기면서 궁중무 전반을 다시 再演할수 있었고, 민속무는 무대무용으로 정착할수 있었다.

셋째, 기생조합 시기의 춤은 서양문물이 들어오고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춤 개념을 모색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놀음방에서 풍류를 즐기는 춤은 계속되었으나 왕을 위한 정재 개념은 없어지고, 일반대중들을 위한 극장 연주로 변화되었다. 관객과 무대가 바뀔에 따라 기생은 춤 개념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기생조합은 길게잡아 약 10년간 유지되었고, 1910년대 후반부터 권번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기간으로는 짧았으나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와 근대화로 넘어가는 기간에 기생들을 조직하였고, 춤을 전승하고 연주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무용사에서 일제시대 기생조합과 기생의 춤을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영애(1995). “한국 근대무용사 연구 - 협률사 원각사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2) 강이향(편)(1989). 『생명의 춤 사랑의 춤』, 지양사.
- 3) 구희서(글) 정범태(사진)(1985). 『한국의 명무』, 한국일보사.
- 4) 김영희(1997). “궁중무의 춤 개념과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5) 김자야(1995). 『내사랑 백석』, 문학동네.
- 6) 김정녀(1989). “권번의 춤에 대한 연구 - 진주권번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7집. 한국무용연구회.
- 7) 김천홍(1977). “궁중무. - 그 주역들”, 『춤』 1월호 통권 11호.
- 8) _____(1976). “궁중무용의 계승자들”, 『춤』 12월호 통권 10호.
- 9) _____(1977). “궁중무의 계보(I)”, 『춤』 5월호 통권 15호.
- 10) _____(1977). “궁중무의 계보(II)”, 『춤』 6월호 통권 16호.
- 11) _____(1995). “심소김천홍무악칠십년”, 민속원.
- 12) _____(1977). “한성준용을 생각함”, 『춤』 3월호 통권 13호.

- 13) 노동은(1994). “노동은의 우리나라 음악사교실 IX”, 『낭만음악』 가을호 통권 24호 서울: 낭만음악사.
- 14) _____(1994). “노동은의 우리나라 음악사교실 X”, 『낭만음악』 겨울호 통권 25호 서울: 낭만음악사.
- 15) 대한민국예술원(편)(1975). 『한국예술사 근세편 - 연극, 무용, 영화』, 문예진흥원.
- 16) 박 황. 『창극사연구』.
- 17) _____(1987). 『판소리이백년사』, 사사연.
- 18) 성경린(1990). 『한국전통무용』, 일지사.
- 19) 유민영(1982). 『한국극장사』, 한길사.
- 20) 이두현(1968).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출판부.
- 21) _____(1994). 『한국연극사』, 학연사.
- 22) 이능화(저) 이재곤(역)(1992).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 23) 장사훈(1989). 『국악명인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24) _____(1993). 『한국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25) _____(1990). 『한국음악사연표』, 청주대학교출판부.
- 26) 田邊尙雄(1970). 『중국·조선음악조사기행』, 동경: 音樂之友社.
- 27) 정혜란(1987). “한성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28) 조선연구회(편)(1918). 『조선미인보감』.
- 29) 조원경(1962). 『무용예술』, 해문사.
- 30) 함동정월(구술) 김명곤·김혜숙(편집)(1990), 『물은 건너 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 봐야 알거든』, 뿌리깊은나무.

신 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만세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황성신문

사 전

- 1) 신기철·신기훈(편저)(1974). 『새우리말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2) 장사훈 저(1995).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BSTRACT

A study on the Dance of Gisaeng Association in Japanese imperialism period

- from 1908 to 1915 -

Young-Hee Kim

A Member of Korea Dance Alliance

There were Gisaeng as the Korean dancer of Japanese imperialism period in Korean Dance History. Gisaeng was active on the Gisaeng Association to the end of 1910's from 1908. In these time Gisaeng turned the traditional dance over the next dance generation, and they created the new dance style to be based on the traditional dance.

At first Gisaeng was organized the name of 'the office of Gisaeng associ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but in 1913 'KwangGyo Gisaeng association' and 'Dadong Gisaeng association' was founded by Gisaeng themselves. Gisaeng organized 'the Gisaeng association' by themselves. Only Gisaeng except the keepers of the brothel rolled importantly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e keepers of a brothel, and the Gisaeng association defined the difference of the Gisaeng as a performer and the Gisaeng as a whore. Gisaeng danced at the concert of Gisaeng association and the charity concert (for school, orphan, sufferers) and as a guest artist. Gradually Gisaeng established as a professional dancer.

There are several significant in Gisaeng Association to the view of Korean dance history. First, Gisaeng Association made a new active style to be dancer from 1908 to 1910's. In Chosun dynasty period, Gisaeng actived at Chang-Ak-Won (the court music office) and Kyo-Bang-cheong(the local music office). After Gisaeng Association, Kwon-Beon took a roll of whole music office instead of Gisaeng Association. Especially through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the active style of Gisaeng made by Gisaeng Association.

Second, Gisaeng Association was a kind of Korean dance and music school and it planned concert in these time (from 1908 to 1910's). After abolition of Chang-Ak-Won, on the stage of modernization, Gisaeng Association taught the Korean

dance to Gisaeng also there were many dance teacher. Many performance was created by GiSaeng association. They also planned many performance. Specially DaDong, KwangGyo Gisaeng association performed again the court dance and they made fix a folk dance as a formal stage dance.

Third, Korean dance of Gisaeng association period that was trying to find the new concept of Korean dance in the condition of modernization. The dance enjoying the elegance(Poong Ryu) in the playroom had been continued, but the CheougJae for the king is vanished and it was changed to the theater performance. With changing of the audience and the stage Gisaeng was groping the new concept of dance.

Gisaeng association was maintained about 10 years. It changed to KwonBeon from the end of 1910's. Even though it was not long time but Gisaeng organized their own association and they handed down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performed them. We should give attention to 'Gisaeng association' on the view of Korean dance history.